

# 김기문 “中企·협동조합 정책지원 메카로 새롭게 도약”

## 중기중앙회장 만장일치 추대

단독 출마해 364명 전원 찬성 제27대 회장 27년 2월까지 임기 부회장 5명·이사 19명 새로 선출 부서 '실' 통합 등 조직체계 개편



김기문 제27대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열린 중기중앙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추대받은 후 노상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년 간 중기중앙회를 더 이끌게 됐다.

김기문 회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제23·24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26대에 이어 4번째로 중기중앙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회장을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27대 회장에 추대했다.

김 회장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중기중앙회를 진두지휘한다.

김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

법 개정 등 보완입법 추진을 통한 납품 단가 연동제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수준 완화 및 50인미만 기업 유예기간 3년 연장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휴먼쇼핑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규제전담팀 신설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상시화 ▲모든 기초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목표 구매율 설정을 통해 지역제품 판로개척 지원 ▲중소유동업 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착, 풀필먼트 전국 확산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1000억원 조성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100억원) 및 지자체(100억원) 직접지원 예산 마련 ▲적정이윤 보장 및 정당한 가격경쟁을 위한 낙찰하한율 개선 등 공공조달 시장 제값받기 제도 개선 ▲현재 13개 지역본부들 18개(경기북부 포함)로 지역거점 확대 ▲‘복도마련-대출-보증-보험공제’로 이어지는 공제상품 라인업 강화 ▲협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을 위한 복합 연수레저 시설 마련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래 트렌드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중

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의 4년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1988년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을 창업한 김 회장은 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6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2천만불 수출탑 수상 및 철강산업진흥 공로로 은탑산업훈장(2008년2월), 세계경제위기 극복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3년2월)을 각각 수훈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4기 김기문호’가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우선 본부 부서명칭을 ‘실’로 통일해 ‘본부-실-팀’ 체제로 개편했다.

상근부회장 직속의 준법지원실, 기획조정실내 디지털전략TF팀, 정책총괄실내 규제혁신TF를 신설했다.

또 판로정책부와 단체표준부는 ‘판로지원실(단체표준팀)’로, 국제통상부와 무역촉진부는 ‘국제통상실(무역촉진팀)’로, 인력정책실과 청년희망일자리부는 ‘인력정책실’로 각각 통폐합했다.

아울러 법무팀(준법지원실), 남북경협센터(국제통상실), 납품대금조정센터(상생협력실), 개발원운영팀(교육지원실)은 폐지하고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지역조직의 경우 경북지역본부를 새로 열고 원주공제센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1단 7본부 36실, 15팀, 14지역본부, 4공제센터, 1 해외사무소를 갖추게 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비상임 부회장 5명과 비상임 이사 19명을 새로 선출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조웅 회장, 안산비철금속유동사업협동조합손인국 이사장,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심승일 회장,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최우각 이사장,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이 부회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회에선 또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이 우수조합(단체)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유공자(개인) 부문에선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권주광 이사장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폐기물 선순환 생태계 구축 추진

## SK에코플랜트와 업무협약

폐기물 시장 문제점 개선 모든 단계 관리 디지털 전환



CJ대한통운 김희준 ESG 담당(왼쪽)과 SK에코플랜트 조재연 DT 담당이 ‘폐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폐기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SK에코플랜트와 손잡았다.

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폐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폐기물을 줄이려면 현재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서 각종 물품이 모이는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종류와 양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은 배출→수집·운반→처리 순으로 이뤄지는데, 주체가 서로 달라 밸류체인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양사는 이러한 폐기물 시장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운반, 최종 처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SK에코플랜트의 폐기물 관리 솔루션인 ‘웨이블(WAYBLE)’을 활용한다. 그동안 측정이 어려웠던 폐기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

식으로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폐기물 발생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한 신규 자원 사용과 폐기물을 감축하는 한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재생 원료로 재생산한다.

CJ대한통운 김희준 ESG 담당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자원순환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와 SK에코플랜트의 환경 인프라를 결합해 독자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제주항공, ‘탐라는 꿈’ 125명 학생 모집

## 객실승무원 교육기부 확대 운영

제주항공이 객실승무원의 꿈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제주항공은 올해부터 교육 참여 대상자를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명칭을 ‘제주항공 탐라는 꿈(탐라는 꿈)’으로 바꾸는 등 학생 대상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편해 운영한다.

제주항공은 2022년 2월부터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 9회에 걸쳐 90명의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탐라는 꿈’은 5회에 걸쳐 모두 125명(회당 25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한다. 객실승무원 직무에

대한 수업과 실제 객실승무원이 받는 안전교육인 심폐소생술(CPR), 현직 객실승무원과의 질의응답 등이 약 3시간에 걸쳐 제주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수료 시 교육기부 수료증도 발급해 준다.

‘탐라는 꿈’은 교육기부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되고, 교육 참여가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이뤄진다. 교육 일정 등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실제 객실승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적극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 대동, 소형건설장비 공급계약 체결

## 현대제뉴인에 2029년까지 공급

대동이 소형 건설 장비인 스킵드 로더(SSL) 사업 추가 확장에 나선다.

1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대동은 현대제뉴인과 ‘소형 건설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 3월까지 SSL 2개 모

델 약 1900대를 공급한다. 이를 통한 예상 매출은 약 700억원이다.

대동은 지난해 말에도 현대건설기계에 2029년까지 소형 건설 장비 SSL&컴팩트 트랙 로더(CTL) 제품을 3000대(약 1280억원) 이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SL과 CTL은 골재, 흙, 풀더미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소형·경량 건설 장비(CCE)다. 국내에선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농촌 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북미에선 전원주택이나 개인농장의 시설 관리 용도로 주로 쓰인다.

대동은 현대건설기계에 이어 올해 현대제뉴인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9년까지 총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V2V 급속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기아가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티비유(TBY)와 2일부터 차량 간 급속 충전 기반의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

기아가 개발 중인 차량 간 급속 충전 기술은 두 전기차의 충전구를 케이블로 연결해 차량 간 충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 고객은 충전을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남은

전력을 거래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기아와 티비유는 지난해 11월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전기차 이비이(EV)6와 봉고 II I 이동형 충전차량을 활용해 3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과 판교에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티비유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 베리(elecvery)’ 앱에서 충전 장소와 시간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kWh까지 무료로 충전을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